

## 『창세기 5회: 창세기 4:1-16, 가인 이야기1』

### 1.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심(4:1-7)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낳은 경우, ‘아들’을 얻었다고 말하지 ‘남자’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남자’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sup>1)</sup>

우선 ‘얻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니티’입니다. 하와는 이 단어의 음가를 따라서 ‘카인’이라 자녀를 이름 짓습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는 말 안에는 하와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술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남자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인을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가인 역시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강조합니다.<sup>2)</sup>

성경은 출산을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로 기술합니다. 본래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경은 출산을 매우 위대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가정이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과 출산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교회에서 ‘출산’에 관한 신성함, 위대함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출산)에 비견할 만큼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은 이름을 짓고(다스림), 하와는 자녀를 출산(번성)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 부부는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수행해야 합니다.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1: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6), 권대영 역, 『창세기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322.

2)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229.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직업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 “가장 기름진 부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첫 이삭이 아니라, 단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고 암시합니다.<sup>3)</sup>

창세기의 원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면, 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초태생을 희생제사로 드리거나 대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sup>4)</sup> 이스라엘은 첫 열매(출 23:16)와 첫 새끼(출 13:2)를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했고, 이스라엘 스스로를 하나님의 첫 열매(렘 2:3)와 첫 새끼(출 4:22)로 여겼습니다.<sup>5)</sup>

종합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서 예배하길 원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서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구별하는 진실한 태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sup>6)</sup> 루터는 “개인이 가진 믿음의 무게가 아벨의 제물의 가치에 더해졌던 것”이라고 바르게 설명합니다.<sup>7)</sup>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구별하는 태도와 구별된 제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사이에 주어진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한 번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주를 사셨나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의 영광을 위해 한 주를 사셨나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다가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옵니다. 늘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최고의 삶을 삽시다.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입니다.

---

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42.  
 4)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박영호 역, 『창세기 1-15』 (서울: 솔로몬, 2006), 237.  
 5)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26.  
 6) 정우준, 『창세기 I』 (서울: 부크크, 2019), 59.  
 7) LW 1.251.

이어서 본문은 가인의 제물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 가인의 반응에 집중합니다.<sup>8)</sup> 가인은 처음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몹시 분하여’는 문자적으로 ‘이것이 가인을 극도로 불태웠다’라는 표현입니다.<sup>9)</sup> 시간이 지나 가인은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 영혼은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이 외적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한다고 정확히 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예배의 실패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질책하기보다 가인을 회개로 이끌기 원하십니다.<sup>10)</sup>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너는 침울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가?”(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의 충동이 너를 향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sup>11)</sup> 여기서 “죄가... 엮드리느니라”라는 단어인 로베츠는 여러 관리들과 악마들이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라비추와 동일시됩니다.<sup>12)</sup> 즉, 죄는 문 앞에 엮드려 있다가 자신의 분노로 인해 악의 영향력에 빠진 가인을 덮칠 준비를 하는 짐승으로 표현됩니다.<sup>13)</sup>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숨어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인에게에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가인에게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한 가인의 책임을 인칭대명사로 강조합니다. “너(הוּא),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sup>14)</sup>

성경은 죄와 관련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수많은 제약을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외모, 키, 재능, 아이큐, 부모, 국가 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 일

---

8)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18.  
 9)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27.  
 10)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28.  
 1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47.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41.  
 13)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32.  
 1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48.

어나는 일들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고, 죄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수많은 제약들에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2. 재판관과 범죄자(4:8-16)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습격해서 살해합니다. 이야기 내내 아벨을 가인의 아우로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가인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sup>15)</sup> 8절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로 시작하고 대화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략을 통해서 아우를 죽이고자 하는 가인의 열망, 서두름을 반영합니다.<sup>16)</sup> 그렇다고 가인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범죄가 “들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저질러졌다는 의미이며, 미리 계획되었다는 증거입니다.<sup>17)</sup> 또한 히브리어 표현도 가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암시합니다(“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 일어서 그를 살해했다”).<sup>18)</sup> 이에 더해 성경은 ‘하라그’(죽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잔인한 폭력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sup>19)</sup> 종합하면, 가인은 아우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죽이기 위해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체 없이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듭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아벨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구약에서 “지킨다”는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통제하고 규제하고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sup>20)</sup> 즉, 가인은 맏형으로서 동생 아벨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서 아벨을 들로 불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 Carol M. Kaminski, *CASKET EMPTY: Old Testament Study*(Charleston: Casket Empty Media, 2012), 이대은 역, 『구약을 읽다』 (서울: 조이선교회, 2015), 52.

16)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33.

17)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41.

18)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33.

19) *BDB*, 247; *TDOT* 3:447-57

2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51.

우리는 한 가정, 교회,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정, 교회, 국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영하려면, 구성원들이 주어진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내에서든 직장 내에서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sup>21)</sup>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인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고발한 후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부정했지만,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성경에서 살인은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합한 것으로 만듭니다.<sup>22)</sup> 후대 이스라엘은 살인이 땅을 더럽힌다는 경고를 받았고, 살인자를 징벌하기 전까지 해당 국가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민 35:33).<sup>23)</sup>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땅으로부터 금지당했다”(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sup>24)</sup> 농부 가인은 더 이상 땅의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인은 자기 음식을 모으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sup>25)</sup> 땅에서 쫓겨난다는 표현은 특히 가족과의 모든 관계 단절과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sup>26)</sup>

관계가 끊어진 가인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방랑자와 도피자’(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명사는 각각 갈대나 나무와 같은 어떤 것이 흔들리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목적 없는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가인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선고 받습니다. 정처 없음을 처벌이고, 광야는 죄인의 피난처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에서 역시 가인과 마찬가지로 방랑했습니다.<sup>27)</sup>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처벌하십니다. 가인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었고, 삶의 형통함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가인과 같은 형벌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

21)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33.  
 22)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43.  
 23)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35.  
 2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53.  
 25)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34.  
 26)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44.  
 2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53.

점차 퇴색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과 노력하는 삶을 번갈아 살면서 주기적으로 업-다운을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는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본문에서 가인이 분노한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으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분노를 원천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비교의식에서 비롯하는데, 예배는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를 비교의식에서 구출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결과를 지기가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슬퍼합니다.<sup>28)</sup>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합니다. 이 걱정은 현 시점에서 아담, 하와, 가인 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오직 가인, 아벨, 셋만이 특별히 언급되고 이름이 밝혀진 자녀이며, 다른 자녀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해합니다. 친족살해자 가인은 이제 친족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sup>29)</sup>

하나님께서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악을 바로잡으실 때, 강자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로잡곤 하십니다. 즉, 강자가 이제는 약자로 전락함으로써 자신의 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을 때,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자에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의 불평을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예정된 형벌을 줄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염려와 걱정을 잠재울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만납니다.

가인은 이 표를 가지고 에덴 동쪽 늦 땅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늦은 방랑자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sup>30)</sup> 가인은 아담보다 에덴에서 더 멀리 추방되었습니다.<sup>31)</sup> 아담에서 가인으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죄는 더욱 악해졌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멀어졌습니다.

28)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20.

2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54.

30)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236.

31)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40.

〈표1: 아담 이야기와 가인 이야기의 비교〉<sup>32)</sup>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3:18)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4:7)
네가 어디 있느냐(3:9)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4:9)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3:17)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4:11, 14)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3:23-24)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고 낮 땅에 거주하더니(4:16)

가인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가인의 살해 행위는 가인 아버지의 범죄에 그 선례를 두고 있습니다.<sup>33)</sup> 이를 통해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를 아담에게서 찾으려 하며,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32) Gray Edward Schnittjer, *The Torah Story*(Michigan: Zondervan, 2006), 박철현 역, 『토라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101.

33)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33.